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구성안 1

상산고등학교 강영준 선생님

소나무처럼 늘 푸른 시인 윤동주

안소영 지음, 『시인 동주』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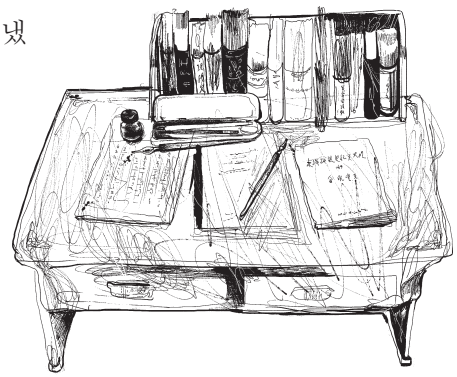
『시인 동주』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소망하던 시인 윤동주의 고결한 삶을 전해 주는 작품이다. 1938년 외사촌 송몽규와 함께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여 문학, 그중에서도 시를 공부하면서 직접 시를 쓰고 문예 잡지를 만들었던 과정이 오롯이 담겨 있다. 글을 읽다보면 어느덧 친구처럼 옆자리에 앉아 윤동주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듯한 착각이 들 만큼 생생한 느낌을 얻을 수 있다.

식민지 조선의 경성. 윤동주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북간도 용정과 달리 백화점, 카페, 신문사, 최신식 상점이 즐비한 시가지를 보며 근대 도시의 일상을 경험한다. 작품 속에 그려진 1930년대 경성을 따라가 보면 우리의 현대적인 삶이 그 시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식 학교에서 근대적인 교육을 받고 전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윤동주와 그의 친구들을 보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선의 한양이 근대 도시 경성으로 변했지만 윤동주와 벗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곳곳에 일본 경찰 주재소의 깃발이 거만하게 조선인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푸른 꿈을 안고 경성으로 유학을 왔지만 윤동주가 맞이한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일제는 조선 반도를 병탄한 후에도 야욕을 버리지 않고 급기야 중국과 전쟁을 일으켰으며 그 과정에서 조선인에 대한 온갖 수탈과 억압이 진행되었다.

모든 물자가 전쟁에 동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도 엄격히 통제당했다. 좌파와 우파를 가리지 않고 의식이 있는 교수들을 잡아 가두었고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검거되기 일쑤였다. 조선어를 가르치던 최현배 교수도, 외사촌 송몽규도 경찰에 잡혀 고초를 겪기도 했다. 친일 지식인들도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암울한 민족의 현실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또한 일제 강점기의 현실이 윤동주의 삶과 문학, 민족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은 독자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윤동주는 암울한 현실에서 시를 썼다. 더 이상 조선어로 글을 쓸 수 없던 시절, 그는 발표할 수도 없는 시들을 묵묵히 써냈다.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십자가」)라는 철저한 자기희생을 밑바탕에 깔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를 썼다.



1942년 윤동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유학을 결심한다. 하지만 전쟁의 광기에 휩싸인 일본

은 그를 창살 아래 가두었고 그는 얼마 안 있어 죽음을 맞이한다. 만 스물아홉의 영원한 청년으로 우리 곁에 남은 것이다. 이 책은 고결한 삶을 살았던 시인 윤동주의 모습을 그릴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민족의식을 지니게 되었는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될 가치가 무엇인지, 문학과 예술은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해 준다.

수업의 초점

청소년 시기는 가치관에 큰 혼란이 초래되는 시기다. 어린 시절 가졌던 꿈과 이상이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며,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물질적인 가치를 쫓는다거나 안정적인 생활을 삶의 목표인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사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생긴다.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은 이 시기에 누구나 겪는 일이 된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청소년기에 『시인 동주』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윤동주의 청소년기의 고민이 두루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버지와 진로 때문에 다툰 이야기라든가,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역할 모델로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어떤 대목에서 공감을 느꼈는지 확인하거나 어떤 모습이 배울 만한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독서 과정에서 꼭 해 볼 만한 일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청년 실업, 인공지능 및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으로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다. 젊은 세대가 사회에 진입하기 어려워진 요즘,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해 갖는 불안도 상당하다. 청년 윤동주가 겪었던 시대도 매우 불안했다.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 초, 일제는 연이어 전쟁을 일으키고 식민지 조선을 병참 기지로 만들었다. 상당수 지식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린 채 친일로 돌아섰다.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윤동주가 어떤 자세를 보였는지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공동체의 문제를 외면할 것인지, 개인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공동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더 정당한 것인지 토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차시별 수업 계획

●●● 읽기 전 활동

1. 제목 『시인 동주』와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

– 제목을 '윤동주 평전'이라고 하지 않고 『시인 동주』라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

– '시인' 하면 떠오르는 낱말에는 무엇이 있을까?

– '시인'은 현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일까?

2. 표지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

– 표지 속 책상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말해 보자.

– 뒤표지에 나온 안도현 시인과 임헌영 평론가의 말을 읽고 그 소감을 말해 보자.

3. 작가 알아보기

– 안소영 작가의 '시인 윤동주'에 관한 소설이다.

4. 차례 보며 내용 유추하기

– 차례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쓰여 있는지 짐작해 보자.

– 차례를 '시어'로 쓴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5. 작품의 배경 살펴보기

– 1930년대 말~1940년대 초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자.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민족 말살 정책, 국가 총동원법, 창씨개명 등.

– 윤동주 기념 사업회(yoondongju.yonsei.ac.kr) 참고하기.

●●● 읽기 중 활동

1. 궁금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표시하며 읽는다.
2. 읽기 전에 예측했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며 읽는다.
3. 인상 깊은 구절들을 떠올려 보고 그 이유를 정리하며 읽는다.
4. 읽기 목적과 수준에 적합한지 판단하며 읽는다.

– 책이 300여 쪽이나 되는 장편이기 때문에 책을 목차별로 나누어 내용을 확인하고 느낀 점을 정리하며 읽기 중 활동을 진행한다.

1부 나의 길 새로운 길

1. 내용 확인

– 동주와 몽규가 경성에 처음 왔을 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11쪽)

– 1930년대 말 일제가 교육과 사상을 통제했던 구체적인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37~38쪽)

– 일제가 침략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당시 식민지 조선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52~54, 73쪽)

– 동주가 아버지와 갈등을 겪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65~66쪽)

2. 느낀 점 정리하기

– 만약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교육을 받았더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상상해 보자.

– 만약 본인이 원하는 진로와 부모님이 바라는 진로가 서로 달라서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 보자.

– 사상을 통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고,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말해 보자.

2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1. 내용 확인

– '황군 위문 작가단'은 어떤 단체이며 친일 문학인들은 어떤 이들이었는가? (99, 119쪽)

– 책 속에 나온 순수문학 논쟁을 살펴보고, 윤동주가 지향했던 문학은 어떤 문학이었는지 말해 보자. (107~108쪽)

– 윤동주가 시 쓰기를 그만두려 했던 까닭과 다시 시를 쓰게 된 까닭을 정리해 보자. (123~124, 155~156쪽)

– 일제가 우리 민족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133~139, 180쪽)

– 책 속에 수록된 윤동주의 「참회록」을 읽고, 이 시를 쓸 때 윤동주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각자 말해 보자. (203~210쪽)

2. 느낀 점 정리하기

– 내가 속한 공동체가 위기를 겪었던 때를 떠올려 보고 그때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들었는지 말해 보자.
(여기서 공동체는 꼭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살아가는 삶과 관련된 공동체, 이를테면 가족, 친족, 친구, 학급, 학교, 동아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 위의 문제와 관련지어 윤동주가 느끼던 것과 자신의 경험을 비교하며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 보자.

3부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1. 내용 확인

– 윤동주의 시 「쉽게 씌어진 시」를 읽고, 이 시를 쓸 때 윤동주의 심정을 각자 말해 보자. (218~220쪽)

–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등 군국주의를 강화하고 있던 시절 윤동주는 일본 유학을 하면서 무엇을 고민했는가? (244~246쪽)

– 일본 경찰에 검거된 후 윤동주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일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260~269쪽)

– 일제가 전쟁 포로 혹은 수감자들에게 행했던 범죄는 무엇이었는가? (284~285쪽)

2. 느낀 점 정리하기

– 윤동주의 삶이 의미와 가치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말해 보자.

– 자신이 꿈꾸던 일이 좌절된 경험이 있다면 떠올려 보고, 그때 어떻게 그 일을 극복하게 되었는지 말해 보자.

●●● 읽기 후 활동

1. 다음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전체적으로 성찰해 보자.

– 책을 읽는 목적과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책을 읽었는가?

– 읽는 중에 자신의 읽기 방법이 적절했는지 점검하며 읽었는가?

– 읽는 중에 시대적인 상황 등 잘 알지 못하는 정보를 확인하며 읽었는가?

– 읽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가?

2. 모둠별로 나누어 독후 활동을 진행해 보자.

1) 모둠을 지어서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은 화제를 각자 적어 보자.

(예시)

–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그 까닭을 말해 보자.

– 이 책에서 그리고 있는 윤동주의 삶은 어떤 점에서 감동을 준다고 말할 수 있을까?

– 친일파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자.

– 윤동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2) 모둠원들이 준비한 화제를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고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나눌지 계획을 세워 보자.

3) 모둠원들끼리 이야기 순서에 따라 대화를 진행하고 이를 정리하여 발표해 보자.

(진행자 1명, 기록 2명, 정리 1명 등으로 모둠을 구성할 것)

Tip! 모둠별 활동을 진행할 때는 주제가 겹치지 않는지 교사가 미리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조별로 주제가 지나치게 비슷할 경우, 발표할 때 내용이 겹쳐 자칫 지루할 수 있다.

모둠 활동 예시

1. 들어가며

우리 모둠은 다른 모둠과 달리 『시인 동주』를 읽고 윤동주의 삶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시대 상황에 주목했다. 그 까닭은 읽기 중 활동에서 윤동주 시인의 삶은 대부분 확인했고, 다른 모둠에서 이미 윤동주의 문학관과 삶의 자세, 가치관 등을 상세하게 토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윤동주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시대적인 배경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특히 일제 강점하에서 지식인과 문학인들이 친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장면을 보고 적잖이 놀랐다. 그런 까닭에 인상 깊은 구절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는 독서 후 활동 주제를 '친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토론을 수행했다. 아래는 토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 토론 정리 내용

현서 이번 소설을 읽으면서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의문이 풀렸어. 솔직히 나는 이육사 시인은 항일 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저항적인 분위기의 시도 썼지만, 윤동주 시인은 항일 운동도 하지 않고 자기성찰적인 시만 쓴 것에 비해 지나치게 높이 평가받는 느낌이었거든. 그런데 이번 책을 읽으면서 그 당시 우리말로 시를 쓰고 시대를 성찰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특히 일본어로 작품을 발표한 친일 지식인들을 떠올려 보면 순수하게 우리말로 시를 쓴 윤동주 시인의 가치가 더욱 빛나 보여. 또 책을 읽으면서 그때 당시 친일파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해방 후에 그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아쉽게 느껴졌어. 프랑스가 나치에 부역했던 이들을 법정에 세워서 단죄한 것과 비교가 돼.

찬우 네 말대로 희망이 없는 시대에 시를 쓴 윤동주의 영혼은 정말 고결해 보여. 그런데 친일파 청산에 대한 내 생각은 조금 달라. 그 당시 일제는 30여 년이 넘게 한반도를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어. 프랑스가 나치에 점령당한 기간은 5년 정도야. 나치에 협력한 사람과 일제에 협력한 사람을 같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워. 30여 년이 넘게 식민지를 경험했다면, 아마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보다는 식민지에 적응하려는 생각이 먼저였을 거야. 생각해 봐. 그 시절 상당수 조선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식민지인이었어. 어쩌면 그들은 식민지인으로 생활하는 데에 큰 문제의식이 없었겠지. 또 일제가 정치권력을 쥔 상태에서 먹고살기 위해서 일제의 눈치를 봐야 했을 거야. 난 그래서 친일 청산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수지 미안하지만 친일파의 변명같이 느껴진다. 아무리 오랫동안 식민지 경험을 한다 해도 민족의 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 세계 여러 지역을 봐. 북아일랜드는 지금도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민족 분쟁을 겪고 있잖아. 아무리 오랫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다 해도 민족성이 희미해지거나 친일이 정당화되지는 않아. 민족과 공동체를 저버린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일제 강점기 친일을 했던 사람은 대체로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탄될 때, 자기 이익만 쫓던 사람들이 많아. 공동체가 망하든지 말든지 사익만 쫓은 이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

찬우 내 생각에 그 당시 그 누구에게도 일제에 저항 의식을 가지지 않았다고 비난할 수는 없어. 일제 강점기나 구한말이나 대다수 백성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 조선의 부패한 관리들에게 수탈당하는 거나, 일제에 의해 수탈당하는 거나 뭐가 달랐을까? 어차피 당하기는 마찬가진데. 따라서 어떤 이들에게는 나라를 잃는 게 큰 의미가 없었는지도 몰라. 그들에게 항일 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야. 좀 더 안정된 삶을 위해 지배 체제에 순응해서 살아간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아. 만약 우리가 그 시절에 살았다면 우리는 친일 대신 항일을 택했을까?

현서 친일과 항일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돼. 친일을 하지 않고도 삶의 방식은 많았을 거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윤동주의 하숙집 주인, 극작가 김송 씨를 봐. 그는 일제에 협력할 수 있었는데도 협력하지 않았어. 불이익이 따랐지만 말이야. 윤동주와 송몽규는 말할 필요도 없지. 그에 비해서 이광수와 같은 문인은 용납하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어.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기 위해 연설을 하는 등 민족을 위험에 빠뜨렸잖아. 개인의 명예와 권력, 재산을 위해 친일한 죄는 꼭 물었어야 해. 나라를 팔아도 후손이 잘 살고, 독립군 후손만 고생한다는 말은 없어야지. 다만 어떤 죄가 더 가볍고 무거운지는 가려야겠지.